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절차' 간소화·빌트인 설치비 반영

매입시기 일반분양 시점으로 기준 개선 물량 늘리고 품질 높여 전용 32㎡ 이하 냉장고 등 설치 "고품질 공공주택 확보 할 것"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개선해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건설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로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1만319호를 사들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왔다.

이번 매입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회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사업 중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의 설치

비용을 반영기로 했다. 시스템에어컨, 불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기본 품목으로 갖추고, 전용 32㎡ 이하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매입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 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월드 시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키우기 서비스 '메타서울펫' 실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디지털 활성화 시의회 "전문가 영입 필요"

서울디지털재단에 콘텐츠개발 건의 재단, 월드 시민랜드 운영 연계해 시민중심 창작 생태계 조성키로

서울시의회가 메타버스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범위 확대, 디지털 전문가 영입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주문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1건, 기타(자료제출 등) 7건을 접수해 25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재단에 건의했다.

이에 재단은 올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월드 시민랜드'(메타버스 서울

가상공간) 운영을 연계해 시민 중심의 메타버스 창작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공모전, 서포터즈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메타버스 서울에 탑재해 월드 시민랜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의회는 기존 '노노(老老)케어'에 한정됐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범위를 넓히라고 재단에 지시했다. 재단은 어르신이 어르신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 등을 알려주는 '어디나 지원단'(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도움 대상을 모든 디지털 취약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서울 전역 어르신 생활 거점 인근에 스마트클리닉 센터(121개)를 마련하고 어디나 콜센터를 상시 운영해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약자들의 교육 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조성

자족기능 확보·일자리 창출 등 기대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혁신산업의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지구 금동동 일원 58만 3000㎡ 규모다. 제1·2판교와 연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족활성화를 위해 1~4번 용지 약 6만 5000㎡에 연면적 약 47만 5000㎡ 규모의 건축물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직(職)·주(住)·락(樂)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강점과 연계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4차산업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 이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첨단시설을 갖춘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일과 후에도 상업·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극장, 공원,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대학교(원)도 유치해 고용 선순환, 산학연 연구개발(R&D) 거점의 역할도 부여한다. 개방형 작업공간(오픈플랫폼) 등 공유형 혁신 공간을 제공,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모여라 친구들, 밖에서 놀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서울·경기 등 9개 지정

서울·경기·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 등 9곳을 선정하고 13개 과제에 총 482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관할인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의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곳에 다녀도 균일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추진 정책 과제를 발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은 총 482억원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424억원, 58억원 부담한다. 운영비로 인천과 경기, 충북, 전북은 만 3~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는 유아학비 감액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현진 기자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공모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안에 조성되는 '(가칭)제2세종문화회관'의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도시·건축·조경·문화·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 기본 계획에는 한강과 가까운 곳에 제2세종 문화회관을 배치해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을 통합하고 녹지 축을 연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모 참가자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집객시설 ▲대공연장·중극장·연습실·

전시장·교육시설 같은 문화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하 주차장 등을 설계하면 된다. 대상지는 여의도공원 서북단 3만4000㎡ 규모 부지이다.

시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고도 제한(65m)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는 최대 50m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변과 조화,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제2세종문화회관 예정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토록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서울시는 KT,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민간기업·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경영·마케팅

컨설팅을 제공,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고객 분석을 통한 주요 타깃 설정, 매체 활용 홍보·마케팅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6일 (화)
음력 : 3월 27일

수도권 날씨
17~30℃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41 | 해질 / 19:19

연천 17/29, 동두천 15/29, 가평 4/22, 파주 13/27, 서울 17/30, 양평 14/31, 인천 16/25, 수원 17/29, 용인 17/29, 평택 15/31, 백령도 12/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비대면 진료' 시범 산 넘어 산...이번엔 조 제약 배달 갈등 /사진 뉴시스
▲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9일 선고... "엄벌 정당하게 받겠다"

▲ 특허청 사법경찰, 해외 유명상표 단위조 귀금속 제조범 검거
▲ 조규홍 "보건의료인 단체행동 시 법령·매뉴얼 따라 조치"



▲ '중대재해법 1년'에도 1분기 산재사망 128명...19명 감소 그쳐 /사진 뉴시스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 확보 돕는다... 규제 개선